

우승후보?... 9개 구단 감독 “KIA” 김기태 “타이거즈”



2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2018 KBO 미디어데이&팬페스트 행사가 열렸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김기태 감독과 양현종·나지완 선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KIA 김기태 감독 “초심 잃지 않고 좋은 모습 보이겠다”
양현종 “우승하면 팬페스트 행사에서 따뜻한 밥 한끼 대접”
나지완 “지난해 걸그룹 댄스보다 좋은 공연 준비 해야죠”

미디어 데이 행사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미디어 데이 무대 중앙에서 ‘2연패’를 예고했다.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미디어 데이 & 팬페스트 행사가 22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열렸다. 10개 구단 감독과 각 팀을 대표하는 선

수 두 명씩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KIA는 김기태 감독과 나지완·양현종이 무대에 올랐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가장 먼저 무대에 등장한 세 사람은 무대 중앙에 위치한 ‘1위팀 자리’에서 행사를 즐겼다. 김기태 감독은 “좋은 성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2018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김 감독은 KIA의 2연패를 위협할 대항마를 지목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9개 팀 모두 전력에 올라갔다. 9개 팀 모두가 우승팀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KIA 타이거즈입니다”라고 답을 해 KIA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 감독의 자신감처럼 이날 자리에서 KIA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주목받았다.

“트로피를 찾아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은 “우승은 저희가 할 것이고요. 후보는 KIA 타이거즈입니다”라며 또 다른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롯데 자이언츠 조원우 감독과 NC 다이노스 김경문 감독도 ‘우승’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우승후보로는 KIA를 꼽았다. SK 와이번스의 힐만 감독 역시 “지난 한국시리즈에서 멋진 승부를 보여줬던

KIA와 두산을 이겨야 우리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KIA를 언급했다. 팀을 대표해 자리를 한 나지완과 양현종은 팬들과 함께 지난해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나지완은 “개인적으로 미디어데이에 세 번째 참석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자리에 서기까지의 힘든 시련들이 생각난다.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다. 이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가 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언급하며 1위 수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걸그룹 댄스’ 우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장까지 했던 양현종은 이번엔 ‘따뜻한 밥’을 약속했다. 양현종은 “지난해 (걸그룹 댄스) 우승 공약을 해서 많은 팬에게 보여주지 못할 모

습을 보여드렸다. 올해는 우승한다면 팬들의 사랑을 받은 입장이니까 우리 선수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팬페스트 행사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추가 공약도 언급했다. 양현종은 “공연이 끝난 뒤 임기영이 다음에 추면 더 잘 출 것 같다고 했다”며 “나 빼고 어린 후배들이 (공연을) 가겠습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선수들이 그렇게 춤을 춘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인데. 최악이었다(웃음)”며 앞선 양현종의 공연을 평가한 나지완은 “더 좋은 공연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현종이와 가깝게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또 다른 우승 공약을 예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주장 완장 찼다

축구 대표팀 내일 밤 11시 북아일랜드와 평가전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축구 대표팀의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대표팀 관계자는 북아일랜드·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기성용이 주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 2014년 10월 울리 슈틸리케 전임 감독의 1기 대표팀에서 처음 주장으로 낙점된 이후 슈틸리케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장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 부임 직후에는 무릎 수술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된 탓에 김영권(광저우 헝다)에 잠시 주장 완장을 넘겨줬다가 부상 복귀 이후 다시 주장의 중책을 맡았다. 기성용 등 유럽파들이 소집되지 않은 지난해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과 올해 초 터키 전지훈련에서는 장현수(FC도쿄)가 주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24일 북아일랜드, 27일(한국시간

28일 새벽) 폴란드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이날 더블린의 아일랜드축구협회(FAI) 내셔널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이틀째 훈련에서 대표팀은 전날 회복 훈련에 이어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했다. 개인별 심장박동 측정기와 GPS(위성항법시스템) 장비를 착용한 선수들은 가볍게 몸을 풀고 돌씩 짝을 지어 공을 주고 받은 후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프리킥 세트피스 연습을 했다. ‘원발 프리킥 달인’ 염기훈(수원)과 이창민(제주)이 키커로 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길고 짧은 프리킥을 차면 선수들은 위치를 선정해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신태용 감독과 코치진은 “말하면서 하라”고 소통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큰소리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좋은 수비와 공격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새 유니폼 22일 오전 서울 두타홀에서 2018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컬렉션을 착용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FC, 첫 승 향한 네 번째 도전

내일 잠실서 K리그2 서울이랜드와 4라운드

프로축구 광주 FC 첫 승을 향한 네 번째 도전에 나선다. 광주가 24일 오후 3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K리그2 4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매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도 승리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뒤 지난 부천FC1995와의 경기에서는 1-2패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점유율과 슈팅, 경기 운영 등에서 모두 상대에 앞선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첫승이 간절한 광주에 호재가 있다. 부천전에서 패배는 기록했지만 공격수들 간 호흡이 맞아가고 있다. U-23 대표팀에 차출됐었던 나상호와 김동현도 이번 원정길에 나설 수 있다. 무엇보다 광주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린 부아가 든든하다. 부아는 올 시즌 광주의 화력을 책임질 공격수로 눈길을 끌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입이 늦어졌다. 팀 적응을 끝내고

지난 부천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른 그는 광주의 시즌 첫 골이자 자신의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여기에 서울이랜드에 전력 누수도 발생했다. 앞선 대전 시티즌과의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안지호가 퇴장당하면서, 수비에 공백이 생겼다. 광주는 빈틈을 노려 초반부터 공세에 나서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 부천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광주는 후반 16분 포프에게 페널티 킥 실점 이후 급속하게 흔들리며 4분 뒤 공민현에게 추가 실점을 하며 승기를 내줬었다. 박집섭 감독은 “무실점을 이끌어 왔던 수비진에게 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격진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경기력에도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광주가 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안고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